

남원시, 스마트 영농관리 '농뷰' 구축 박차

시, 스마트빌리지 보급 중간보고회...데이터 구축 등 개선 방향 논의 드론·AI 활용 조사료 미재배 면적 식별...현장 점검 비율 71% 감소

남원시가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뷰'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을 통해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뷰(Nong-View)' 구축하는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남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 전 지역의 드론 영상데이터 구축, AI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료 생산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비닐하우스 운영관리 등 3건의 서비스 개발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드론 영상 데이터 구축, AI 기반 영상 분석

체계 등 '농뷰' 핵심 기능별 중간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드론 영상과 AI 기술을 통해 조사료 미재배 면적 167ha(약 11%)를 정확히 식별했다. 이를 통해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조사료 재배지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도 71% 줄이는 등 행정 효율을 크게 높였다.

보고회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드론과 AI 기술을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접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뷰(Nong-View)' 구축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남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1인당 최대 60만원"

고창군, 어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고창군이 관내 280명의 어민들에게 추석 전까지 '어민공익수당' 30-60만원씩 총 1억5150만원을 지급한다.

어민공익수당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3년 12월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영업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2명의 신청을 접수했고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어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카드형 신청자는 본인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 신청자는 읍·면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사법서비스 강화 필요"...정읍시, 전주가정법원·정읍지원 설치 촉구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에 대한 강력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정읍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정읍지원 설치에 고창·부안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보장할 핵심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단순 법원 신설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보장과 주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 국회통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서남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시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설치 추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산업 현장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

중대재해예방 등 선제적 대응

남원시가 산업 현장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원시는 최근 지역 관리감독자(부서장) 58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안전대책에 발맞춰 마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차원이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자의 법적 책임과 역할,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임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의 기본 임무와 안전관리 의무 ▲위험성평가 방법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보고 절차 ▲지자체 발주 위촉작업(전기, 벌목, 맨홀)의 안전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 단순한 법령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를 통한 위험 인식과 대응방안 공유를 통해 부서장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엇보다 부서장이 솔선수범해야 조직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된다"라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군입대 청년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호응

올해 182명 혜택

정읍시가 3년째 지급 중인 입영지원금(10만원)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8월 말 기준)의 경우 182명의 청년이 18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지역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

고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다. 입영 전에는 물론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입영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가족 등이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chak)에 가입해야 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따뜻한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했다"라며 "입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잊지 말고 입영 지원금을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단체 간담회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건의

고창군이 2025년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단체 네트워크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는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마련된 핵심 소통 창구다.

고창군은 첫 순서로 군 대표 청년 커뮤니티인 '고창군 청년벤처스'와 만나,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벤처스'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주거 및 창업 인프라 구축 ▲청년 주도의 문화·참여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건의했다.

김현준 고창군 청년 벤처스 대표는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은 고창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정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고창군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